
<부 록> 한국 경제와 외채 문제

○ (외채 문제와 관련한 단순 가정) 우리나라의 향후 5년간의 총외채 수준과 채무 상환 부담을 다음과 같은 단순한 가정 하에 분석

- (외채상환 및 이자 지급)

- (장기 외채) 1998년부터 매년 100억 달러의 장기 외채를 상환하고 같은 규모의 신규 장기 외채를 도입한다고 가정 (1998년 실제 장기 외채 상환 부담은 107억 달러)
- (뉴욕 협상에서 만기 연장된 외채) 위의 장기 외채와는 별도 계획에 의해 상환되며 상환 시에는 같은 액수의 신규 차입이 있는 것으로 가정
- (단기 외채) 만기 연장을 통해 404억 달러 수준을 2002년까지 유지
- (외채이자) 단기 및 신규 장기 외채의 이자율은 10%, 기존 장기 외채 이자율은 5%로 가정

- (외채 규모) 위의 가정에 따르면 총외채의 수준은 일정하게 유지될 것임

- 총외채의 규모는 1998년 5월을 기준으로 1,550억 달러(IMF 기준)임
- 위의 가정에 따라 향후 5년간 외채 규모는 1998년 5월의 수준을 유지
- 총외채 규모의 평가에는 IMF 기준과 IBRD기준(1,260억 달러)을 모두 사용하였으나 채무상환비율의 평가에는 IMF기준의 외채를 근거로 분석

○ (총외채 수준 평가) 우리 나라의 총외채 수준은 국제 기준으로 볼 때 위험한 수준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판단

- (외채 위험 수준 평가 기준) IBRD는 다음의 기준으로 채무국을 평가

	총외채/GDP	총외채/총수출
輕채무국	48% 미만	132% 미만
중간채무국	48~80%	132~220%
重채무국	80% 이상	220% 이상

- (외채 및 총수출 규모) 본고의 가정에 따라 1998년 5월의 외채의 규모는 2002년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설정
- 총수출은 상품 수출과 무역외 收入을 합한 개념이며 무역외 수입의 규모는 상품 수출의 25.0%(1993~98년 평균)수준으로 가정
- (총외채 규모 평가) 추정 결과 우리나라 총외채 수준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평가
- 총외채/총수출의 경우 두가지 기준의 총외채 모두 輕채무국의 판단기준에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남
- 총외채/GDP의 경우 IMF 기준의 총외채는 1998년 중간채무국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이나 전체적으로는 經채무국의 수준으로 나타날 전망
- 우리 경제가 원만하게 구조조정을 하고 대외 경제적으로 심각한 악재가 발생하지 않는 한 단순한 외채 규모에 의한 외환 위기 재발 가능성은 매우 낮음을 의미

< 총외채 규모에 대한 평가 >

(%)

	1998	1999	2000	2001	2002
IMF 기준의 총외채 : 1550 억 달러 (1998년 5월 기준)					
총외채 / GNP	50.1 (53.9)	43.4 (49.3)	35.6 (45.5)	30.6 (41.6)	27.2 (35.2)
총외채 / 총수출	91.4 (92.8)	93.5 (99.2)	93.9 (103.8)	85.8 (100.6)	77.9 (95.2)
IBRD 기준의 총외채 : 1260억 달러 (1998년 5월 기준)					
총외채 / GNP	40.7 (43.8)	35.3 (40.0)	29.0 (37.0)	24.9 (33.8)	22.1 (28.6)
총외채 / 총수출	74.3 (75.4)	76.0 (80.6)	76.4 (84.4)	69.8 (81.8)	63.3 (77.4)

주 : 괄호는 비관적인 시나리오에 의한 추정치

- (부채 상환 부담) 뉴욕 협상에서 장기로 전환된 외채의 만기도래, IMF 차관의 원금상환 시작으로 2000년 이후 외채 상환 부담이 높아질 전망
- (채무 상환 비율) 본고는 우리 경제의 향후 외채 상환 부담을 추정하기 위해 2002년까지의 채무상환비율(Debt-Service Ratio)을 단순하게 추정

- 채무상환비율은 다음과 같으며

$$\text{채무상환비율} = \frac{\text{장기외채원리금} + \text{단기외채이자} + \text{IMF신용공여}}{\text{총수출}}$$

IBRD는 이 비율이 18%가 넘으면 위험한 것으로 간주

- (채무 상환 비율 상승) 채무상환비율은 1998년과 1999년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0년에는 뉴욕협상의 결과로 만기 연장된 장기 외채의 상환도래, 2001년부터는 IMF 신용의 상환 시작으로 급격히 상승할 전망
- 채무상환비율은 2000년에 위험수준을 넘어서고 2001년에는 더욱 악화 전망

< 채무상환비율 (Debt-Service Ratio) >

	1998	1999	2000	2001	2002
장기외채원리금 +단기외채이자 +IMF신용공여 (억달러)	190.7	197.5	301.0	344.1	280.9
채무상환비율 (%)	11.2 (11.4)	11.9 (12.6)	18.2 (20.2)	19.1 (22.3)	14.1 (17.3)

주 : IMF 기준의 외채를 사용하여 추정, 괄호는 비관적인 시나리오

○ (시사점) 외채 상환에 불안 요소가 있는 만큼 대외 채무 상환 능력을 제고하는 노력 필요

- (외채 상환 여건 악화 가능성) 대외 신인도가 하락할 경우 외채 상환 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여 외환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음
- 대외 신인도가 저하될 경우 ① 해외 자본 유출에 따른 외환 보유고 감소, ② 단기 외채의 만기 연장 어려움으로 추가적인 상환 압력 발생, ③ 국내에서의 달러 가수요에 따른 외환 시장 교란, ④ 무역 금융 마비에 따른 수출 지속의 어려움으로 외채 상환 여건은 위의 분석보다 더욱 악화될 수 있음
- 구조조정이 지연되면서 대외 신인도가 하락할 것을 가정하고 있는 비관적 시나리오 하에서는 외환 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임

-
- **(외채 상환 능력 제고 필요)** 대외 신인도 및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고 외환 보유고를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
 - 원만한 구조조정에 따른 대외 신인도 제고는 원활한 외채의 신규 차입 및 만기 연장 그리고 해외 투자의 유치를 가능하는 가장 중요한 외채 문제의 대안이 될 것임
 - 자력에 의한 외환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는 수출 증대가 유일한 방법임. 이를 위해서는 무역 금융의 활성화 및 고환율 기조 유지가 필요하며 수출 잠재력 확충을 위해 가능한한 설비 및 R&D 투자를 지속하여야 할 것임
 - 불안정한 대내외 경제 상황을 감안할 경우 외환 보유고를 충분히 유지하고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대외 채무 상환 능력을 종합적으로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